

제9089호 대표전화 (062) 650-2000

35 kidaily.com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음력 11월 25일)



“통합의 길 향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가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열려 광주·전남 행정통합 상정 안건 보고와 심의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추진협의체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통합 준비 작업 ‘일사천리’

광주시·전남도가 통합 논의에 물꼬를 튼 지 2주일 만에 추진기획단에 이어, 추진협의체까지 가동하며 광주·전남 행정 통합 준비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3·4·18면

광주시·전남도는 이제명 대통령의 전폭 지원 방침에 힘 입어 오는 16일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 소통, 시·도민 의견 수렴 등 ‘속도전’과 ‘여론 환기’ 트트랙 전략으로 추진 동력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광주·전남통합 추진특별위원회’와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 구성으로 16일까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서며 6·3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제1호 광역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민관 합동 실무기구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김영문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광주에서는 정영필 광주방시대위원회장이, 전남에서는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은 양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광주·전남에서 각각 8명씩 선정했다.

광주시·전남도는 지난 2일 ‘대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행정 지원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데 이어, ‘추진협의체’까지 발족시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력을 높일 전망이다.

市·道, 기획단 이어 추진협의체 가동

16일께 특례 담은 특별법 발의 전망 속도전+여론수렴 트트랙 ‘가속페달’

민주당도 특위 구성 완료 측면 지원

시·도지사-양 교육감, 내일 4자 회동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 공동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통합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안을 제안하며 시·도민 참여 공론화 방안·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행정통합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회적 논의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광주시·전남도는 지역·계층별 목소리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광주·전남 대통합 소통플랫폼’을 구축해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이다.

또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광주·전남 범 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 27개 시·군·구 순회 설명회·간담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광주시·전남도는 추진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을 공동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 1일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 행정통합의 새 역사

를 연다는 구상이다.

강기정 시장은 “추진협의체가 시·도민의 이야기를 듣고, 입법 지원을 하고, 무한대의 상상력으로 광주·전남 통합의 미래를 그려갈 것”이라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추진협의체 위원들이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가 마련한 기본 빠대는 이후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마련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도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27개 시·군·구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의 원칙을 끌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양 시·도지사는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광주 5개 구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대통합 성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18일엔 5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연다. 김영록 지사도 18일 전남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행정통합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계층별 목소리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광주·전남 대통합 소통플랫폼’을 구축해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14일 서울에서 행정통합 관련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행정통합 완성 초석” 교육 통합도 가속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에 맞춰 양 지역 시·도교육청을 합치는 교육 통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2일 오전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찬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이 교육감과 김 교육감은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교육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가치를 완성하는 초석이어야 한다”며 4개 항의 공동 발표문에 합의했다.

시·도교육청은 발표문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축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하고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과정에서 헌법 제3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하며, 지역 발전의 주역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통합을 이루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교육가족과 교육 구성원이 인사상 불안 없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육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도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도 통합을 통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이며, 더 큰 광주·전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란 희망을 함께 키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교육청은 교육행정 통합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교育행정통합추진단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하고 인사 규정이나 학군 배정 등 미세한 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양 교육감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시장과 특별교육감을 두는 이른바 ‘1+1’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선출 방식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특별법안 제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인사 규정·학군 배정·예산·감사 등 각

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 교육계는 시·도 교육통합으로 광주에 한정된 근무지가 전남으로 확대되는 점을 우려하는 반면, 전남 교육계는 광주로 근무지 변경

을 환영하면서 확연한 운도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시 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생활권과 무관한 인사발령을 우려하며 교원 인사·전보·승진과 관련한 어

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과

장기적 유기 간 마련

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와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이날 생명을 내 “수도권 일국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

대적 과제”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대의에 적극 찬성한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교육통합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인사 규정’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임용된 교원부터 (인사 이동) 적용되는 특례를 특별법 부칙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교육감도 “인사제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Today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전문가 참석 안내 6면

“지방 맞춤형 부동산 부양책 시급하다” 12면

KIA 올시즌 리드오프, 4·5·6선발은? 16면



성금 접수 계좌

광주 사랑의 열매 : 1107-021-864333 (광주은행)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회

전남 사랑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남도지회

지구를 살리는 에너스
동신의 에너지 센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C



전기요금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조건 주택용(가정용) 전기 사용 고객 중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

신청 포털 '한전에너지캐시백' 검색 / 한전ON(QR) 접속 / 한전사업소 방문

지급액 절감량 따라 30~100원/kWh



가스요금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조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중 전년 대비 3% 이상 절감

신청 포털 '도시가스 캐시백' 검색 / 공식 홈페이지(QR) 접속

지급액 절감량에 따라 50~200원/m³

기간 '25년 12월 ~ '26년 3월



탄소중립 실천하고 인센티브 받기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누리집 회원가입 → 에너지 사용량 감축(전기/상수도/도시가스) → 인센티브 수령

신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누리집 회원가입 → 상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원료 및 신청(회원 탈퇴 시까지 참여)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